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전통예술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14:00~18:00
 - 2024년 12월 10일(화) 9:30~18:00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은아, 소경진, 유민희, 윤중강, 한지영

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그간 대한민국 공연예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괄목할 성과는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응모했습니다.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인터뷰를 통해 경청하면서, 모든 개별 작품마다의 특징(特長), 곧 특징과 장점을 두루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성실하게 응해준 모든 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심의라는 것이 결국 탈락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작품마다의 수준과 가치는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 자격을 갖추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심의할 때는 결국 "창작산실의 의도와 얼마나 부합하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는 매우 성실하고 신중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첫째, 전통예술계에서 그간 꾸준히 창작 작업을 진행해 온 예술단체의 '새로운 시도'가 있어 반가웠습니다. 둘째, 지역 단체 혹은 신생 단체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신규단체의 조합, 지역 간의 균형감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본 부분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향후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술성과 실험성이 더욱더 발전되면서, 단체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작품의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해외에까지 소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작품도 만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선정된 '올해의신작'은 앞으로 국내 공연을 넘어서서 해외에까지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거의 모든 작품이 다 우수했고 저마다 개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작품을 통해 예술적·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단체의 작품은 기획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나,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은 실행 가능성에는 다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작품의 선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롯한 실행과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체화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 많은 관객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의신작'이 전통예술의 소재적 차원을 넘어서서, 전통예술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예술은 그 안에 가무악희(歌舞樂戲)를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장르 간의 안배 또한 염두에 두었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최근 전통예술계에서 굿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굿 중에서도 동해안 별신굿에 편중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농악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접근에 주목했습니다. 컨템포러리한 농악의 접근과 과거에 존재한 여성농악을 이 시대의 여성농악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농악의 레퍼토리 확장에 분명 공헌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 인형극을 바탕으로 해서 판소리와 연극적인 요소가 만나서 21세기 인형극이 점차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연희의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의 풍물, 무속, 탈춤의 무대적 수용 작품이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통예술과 타 장르의 융합에 관하여 심의위원은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타 장르에 대한 이해와 경험치를 높여서 전통을 중심에 두고 보다 더 공감각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특히 명심해야 않을까요? 전통예술을 더 깊게 보고, 또한 타 장르를 넓게 보면서, 이를 씨줄과 날줄로 잘 엮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일까? 지난 수십 년간의 공연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창작'하거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작'한 작품을 통해서 전통예술계에 새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신작'에서 그런 작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올해의신작'이 시민과 만나서, 많은 분께 감동을 주는 순간을 미리 기대하게 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감흥을 받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 그대로 전통예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올해의신작'은 결국 '전통의 재구성'과 '창작의 신전통'이라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진지한 고구(考究), 진지한 자세로 보다 더 연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작품의 선정 과정에서 특히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와 작품의 지향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기술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곧 메시지는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선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의견은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동시대성과 예술성, 실험성입니다. 아울러 지원서에 작성된 프로덕션 구성을 비롯해, 작품 제작 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도 중시해서 살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그룹)에 공히 적용될 키워드는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입니다. '올해의신작'이 이런 시대적인 명제를 잘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올해의 작품은 특히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융복합'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예술'을 중심에 두고,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일수록 더욱 "전통예술의 존재가치와 활용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에 응모한 모든 작품과 관계된 분께 모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선정과 탈락을 떠나서 모든 작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